

〈자료소개〉

『해방전후의 조선진상』

金 學 俊

(서울대 사회대 교수)

해방 3년사를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기간에 출간됐던 신문과 잡지 및 단행본들을 하나하나씩 읽어나가고 그 간행물들의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의 하나로 필자는 이러한 간행물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골라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될 수 있는대로 이 간행물들의 내용 그 자체를 소개하고자 한다. 분석과 평가보다도 자료가 지니고 있는 내용의 노출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철자법은 어느 정도 조정했다. 여기서는 우선 『해방전후의 조선진상』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 책은 金鍾範·金東雲 공저로 조선정경연구사에 의해 1945년 12월 26일 발간됐다. 제 1집은 「총독정치의 죄악폭로」이며 제 2집은 「독립운동과 정당 및 인물」이다. 공저자들은 한민당에 가까웠던 인사로 보인다.

◇ 제 1집

전반적으로 보아 제 1집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일제식민지배의 실상에 대한 연구와 자료는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점들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조선 2천 수백 만의 민중의 운명은 일본제국의 지점장인 조선총독에 전속이 되었다. 그러나吾人이 이에 특히 중시하는 것은 지점장의 세력보다 지점의 중견점원의 세력이 豪大하였던 것이다. 총독부의 과장 이하 사무관·기사·주임급과 지방청의 이 계급의 인물과 警察吏의 세력은 실제에 있어서 조선을 지배하였다. 大方針의 수립은 총독·총감·국장급의 수중에 있었으나 그 운용은 과장 이하의 중간급에 있었다. 그들은 일본제국주의적 착취정책이 골수에 침투하여 일본인 본위로 모든 시설과 대책을 수립하였고 모든 허가도 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도 경찰리의 만능에는 총독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全조선사회에 3천수백명의 기생이 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조선의 장래를 위하여 통탄할 바인 동시에, 조선정치방면에 3~4천명의 경관(全조선 총수 2만 수천명 중 警部補 이상의 요직자와 형사 등)이 절대의 세력을 갖고 조선의 정치와 민중을 좌우하는 원동력이 되어 있었다.”(pp. 11~12)

2. 그러나 “총독정치의 부패는 친일조선인이 조장하였다. 일본인의 국민성이 직언을 싫어하고 자기들의 非라도 是라 하며 惡이라도 善이라 하는, 즉 巧言令色하며 阿諛苟容하는 자를 좋아함으로 일본인과의 교제묘방을 아는 조선인만이 총독부에 출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인사는 일본인과의 접근을 自避하며 일본인도 그러한 사람들과는 만나거나 담론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과 접근하여 총독부에 출입하는 조선인의 대부분은 정치브로커 또는 이권운동자 등이었고 그 밖에는 일본인의 신뢰를 받아서 각종의 공직을 갖고 일방 총독부로부터 여러 가지 후원을 받는 자 등 소위 친일파 유력자 幾個人이었다. 이러한 徒輩의 일본인에 대한 진언은 조선의 민정 등은 도외시하고 일본인이 환영하며 좋아하는 말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기에 전력하고 그 代償으로 여러 가지의 원조와 보수를 받아 사복을 충한 것이다.”(pp. 12~13)

3. “大正 10년 전후, 즉 조선독립운동 전성시대는 고등계 경찰관의 전성 시대이었다. 민족주의자 중에는 상당한 자산가가 많았으므로 고등계원 중에는 상당한 新富者가 났다고 한다. 그러나 昭和年代에 入하여는 조선의 사상 운동이 무산계급운동으로 化한 것 만큼 고등계 형사배는 불경기시대였던 반면에 近年은 경제계 형사의 전성시대였다. 그러나 경제계 형사만은 상부의 감독이 엄한 관계로 비교적 부정행위가 적었다. 그리고 사법계 형사들은 始終如一히 호경기였고 보안계도 제 3 위에 갈만 하였고 위생계가 비교적 빈약하다 하겠으나 경무계·병사계 등의 빈약한 상태에 비해서는 위생계도 전연 不成績은 아니었다.”(p. 68)

◇ 제 2집

제 2집에는 해방 직후에 쏟아져 나온 정당들과 그리고 정치지도자들에 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부분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조선혁명당——在滿조선혁명동지회조선본부가 발전적 해체를 하고 45년 8월 20일 조선혁명당을 조직했다. 대표는 李浩元, 주요 강령은 ① 민주주의 공화국 건설 ② 일체의 계급적 대립 타파 ③ 각종의 平衡生活 보장할 경제제도 확립 등이다. (pp. 79~80)

2. 조선민주당——위원장 鄭仁果. 보수우파. “이 역사적 순간에 있어서 3천만 동포의 나아갈 길은 대동단결 이외에는 없다. 우리는 각자의 주의주장과 계급과 종파를 초월하여 조선의 완전독립을 위하여 일로 매진하려 하는 바이다.”(선언 : p. 81)

3. 민주당——대표 李鍾榮. 보수우파.

4. 조선농민동맹——중앙위원회장 金容基. “① 우리 농민은 대동단결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의 변혁을 기함. ② 우리 농민은 단결의 힘으로써 우리 농민대중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諸부면의 급속한 향상을 기함. ③ 우리 농민은 근로대중과 제휴하여 압박과 착취없는 사회의 건설을 기함(강령) : ① 농민을 본위로 한 민주공화국을 지지하자. ② 농촌의 행정·치안은 가급적 우리 농민으로써 조직된 농촌위원회에서 하자. ③ 남녀 20세 이상은 모두 평등으로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자. ④ 고도 누진세를 시행하고 농민을 압박하는 일체 조세를 폐하기로 하자. ⑤ 제국주의자와 민족반역자의 동산·부동산을 무상으로 몰수하자. ⑥ 토지이용권·경작권은 농민에게 適宜 분배하자. ⑦ 수리조합·수리계는 일체 국가의 소유로 하여 농민에게 무상사용으로 개방하자. ⑧ 농산물은 생산자의 소요량을 제한, 잉여분은 국가에서 이를 매수하여 국민에게 適宜분배하게 하자. ⑨ 현재 농촌에 있는 금융조합과 산업조합은 이를 개편하여 농촌금융기관·농촌협동조합·농촌소비조합을 조직하자. ⑩ 농업노동자의 임금과 시간을 규정하자. ⑪ 농촌의 봉건적인 인습을 타파하고 문맹퇴치하자. ⑫ 무산농민교육의 확립과 농업기술자의 대량 양성을 기하되 교육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하자. ⑬ 기계농업의 급속한 발전과 농업의 합리화를 기하자(주장).”(pp. 86~88)

5. 大韓民國人民政治黨——고문 李鍾泰, 黨首·副黨首 미정, 총무부장 金錫璜.

6. 新民黨——위원장 미정, 부위원장 梁起鐸·李觀求. “우리는 新民主主義국가의 건설과 그 발전을 기함.”(p. 91).

7. 大韓義烈黨——“국내에 民意로 기초된 통일정부가 성립될 때까지 在重

慶 대한정부를 절대로 지지함.”(p. 91).

8. 고려청년당——동아일보사 내에 위치.

9. 조선청년단.

10. 조선국군준비대——총사령 李赫基. “우리는 現有 군사적 역량을 집결하여 국군편성의 기초를 준비하고자 함. 우리는 군별적 발전을 경계함. 신정부 군대가 편성된 때는 그에 합류함.”(강령, p. 98).

11. 조선여자국민당——고문 李承晚각하부인, 위원장 任永信, 부위원장 金善·異恩·惠, 총무 朴賢淑, 부총무 黃賢淑, 교육부장 朴恩惠, 사회부장 李娥主(pp. 104~106).

12. 전국부녀동맹——“조선 여성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해방을 기함. 남녀평등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주장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찾자. 여성의 자주적 경제생활을 확립하자. 남녀 임금차별을 철폐하자. 공사창체·인신매매를 철폐하자.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설을 실시하자. 여성의 대중문맹과 미신을 타파하자. 우리는 창조적인 여성이 되자.” 위원장 劉英俊, 부위원장 朴順天(pp. 106~107).

13. 대한민국국민당——1945년 9월 16일 성립. 보수우파. 당수 許鋼, 부당수 朴熙哲. 10월 3일 임정환국준비위원회에 통합됨(pp. 109~112).

14. 고려사회민주당——1945년 9월 12일 성립. “민족적 종의에 입각하여 진정한 사회주의의 정권수립을 기함.”부서 미상. “사회민주주의 국가건설을 표방하고 있으나 진보적인 점은 하나도 없다는 평이 있으며 그 정체는 알기 어렵다 한다.”(pp. 114~115).

15. 白協노동당——1945년 8월 17일 영등포에서 결성. “백협노동당은 전국노동자의 대동단결을 촉진하여 진실한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기함. 백협노동당은 전국 노동자의 완전한 해방과 복리증진을 기함. 백협노동당은 혁신한 사회질서를 건설하여 국민 皆勞의 체제확립을 기함.”(강령, p. 116). 大連비행기주식회사 노동자 출신의 金相舜이 대표이다. 임시정부 지지와 인공반대를 표방함. 영등포 소재 산업청년동맹(공산계)과 대립관계.

16. 천도교청우당——1945년 9월 14일 성립. 日帝下 탄압으로부터 이 날을 기해 ‘부활’했음을 선포. 위원장 李應辰.

17. 在重慶한국독립당

“在重慶대한임시정부의 유일한 여당”인 한국독립당에서는 지난 8월 28일

에 제5차 임시전체대표대회를 重慶에서 열고 同黨의 당면한 임무에 대하여 그 정치 노선을 中外에 성명한 바 있었는데 去 7일에 同黨領袖요 임시정부의 요직에 있는 金思忠씨의 위촉을 받은 중국 中央社 通信기자 曾恩波씨는 重慶으로부터 공로입경하여 한국민주당에 前記 제5차 대회의 다음과 같은 선언의 내용·黨議·黨綱·당책·당면구호를 전달하였다.

선언내용

정치·경제·교육의 新민주국가 건설

本黨은 선조·선열의 장엄한 전통적 민족정기를 紹承하며 민주독립의 위대한 시대적 정신에 基因하여 故에 국외의 동지에게 정중히 선언을 發한다. 本黨은 유구한 역사적 계통을 가진 반일투쟁으로 계속하여 강렬히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 대상이 소멸된 이 때에 있어서는 과거를 다시 검토하면서 新계단의 임무를 규정하지 아니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 침입한 이후 70년래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분전하였다. 이것은 「왜적을 박멸하고 조국의 완전한 주권을 쟁취」하려는 민족정신의 표현이었다. 회고하건대, 갑신혁명·갑오경장·의병의 유격전·독립협회·대한자강회·신민회·대한협회·반일구국除奸·삼일대혁명 등은 그 대표적 운동이다.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비록 객관적 정세로 인하여 그 環節의 大小가 不一하고 형태가 不同하였지만 今日까지 꾸준히 生長하고 발전하여 왔다. 그 최근의 環節이 곧 한국독립당이다. 따라서 혁명역사가 한국독립당에게 부여한 임무는 「원수 일본의 침탈세력을 박멸하고 조국을 완전 광복하는 것」이다.

本黨은 이처럼 유구한 연원을 가진 광영스러운 역사적 임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민족운동을 復國, 建國, 治國 계단으로 分期진행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건국과 치국의 전과정을 통하여 本黨의 일관한 목표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新民主國을 건립하는 동시에 民族與族·國與國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일가의 진로로 향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黨을 응호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며 또 국내외의 광대한 동지들이 확고한 자신을 가지고 堅忍不拔하는 정신으로써 혈전을 전개한 원천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천백배의 용기를 가지고 조국의 독립 자주와 동포의 민주단결과 전인류의 공영을 위하여 최후까지 분투할 것을 더 한번 결심한다. 현하 왜적은 붕괴되었다. 우리의 조국은

동맹국의 우의적 협조하에 해방되고 있다. 이로부터 정의의 예봉은 다시 빛나며 파시스트 强盜群은 陽光下의 微菌과 같이 소멸되게 되었다. 국가와 국가간, 민족과 민족간의 안전은 그 보장의 길이 평탄하며 전세계 인류는 자유평등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天은 自助하는 者를 助하는 것이다. 이제 自家의 분투가 없이 自國의 獨립과 自族의 행복이 있기를 희망할 수 있으랴. 本黨은 그리던 조국을 향하여 전진하려는前夕에 있어서 임시대표대회를 열고 국가와 민족의 大計를 討決하였다. 本黨의 과거 工作을 회고하면 훼예와 공죄가 併有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장점을 취하며 그 단점을 버리어 장래의 殷鑑으로 삼기로 하고 그것을 여기에 重揚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萬般이 鉅박한 이 때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현재에, 의론보다 실행에 중점을 置하는 것이 마땅한 까닭이다. 本黨은 동지동포의 애호하는 열정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며 진보하는 시대조류에 순응하기 위하여 今次 대회에서 黨綱·黨策을 수정하였다. 우리는 本黨의 黨義와 수정한 黨綱과 黨策을 친애하는 동지동포 앞에 제공하여 써 공정한 비판을 청한다. 이에 공명하는 자매형제여, 한국독립당의 가치하에 모이자!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며 또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新民主國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공동분투하자!

黨 義

우리는 5천 년 독립자주하여 오던 국가를 異族 일본에게 빼앗기고 지금 정치의 유린과 경제의 파멸과 문화의 말살 앞에서 사멸에 직면하여 민족적으로 자존을 得하기 불능하고 세계적으로 공영을 圖하기 未由한지라. 이에 本黨은 혁명적 수단으로서 원수 일본의 모든 침탈세력을 박멸하여 국토와 주권을 완전광복하고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新民主國을 건설하여 써 內로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하며 外로는 族與族 國與國의 평등을 실현하고 나아가 세계일가의 진로로 향함.

黨 綱(기본강령)

1. 국가의 독립을 보위하며 민족의 문화를 발양할 것.
2. 계획경제제도를 확립하여 균등사회의 행복생활을 得케 할 것.
3. 全民 정치기구를 건립하여서 民主共和의 국가체제를 완성할 것.
4. 국비 교육시설을 완비하여 써 기본지식과 필수기능을 보급할 것.
5. 平等互助를 원칙으로 한 세계일가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

黨 策(행동강령)

1. 유구한 독립국가의 眞諦를 천명하고 독특한 문화민족의 실적을 발휘 할 것.
2. 국가민족의 전진한 생존발전과 평화로운 세계 대가정을 건립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에게 민주 단결의 정신을 적극배양 할 것.
3. 계급·성별·교파 등의 차별이 없는 普選制를 실시하여 국민의 정치권리를 평등히 할 것.
4. 노동·교육·선거·파면·입법·보험·구제 등 각종 기본권리를 향유 할 것.
5. 신체·거주·집회·결사·언론·출판·신앙·체신 등의 자유를 확보 할 것.
6.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국민의 정치능률을 揚高하며 중앙及지방의 均權制를 실행할 것.
7. 토지는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법·토지사용법·地價·세법 등의 법률을 규정하여 期限實行할 것.
8. 토지는 인민에게 分給하여 경직케 하되 극빈한 농민의 발전을 도모할 것.
9. 교통·광산·삼림·수리·운수·전기·어업·농업 등 전국성의 대규모 생산기관은 국가경영으로 할 것.
10. 국민의 現有한 사유토지와 小中규모의 사영기업은 법률로써 보장할 것
11. 국민의 각종 교육의 경비는 일률로 국가에서 부담할 것.
12. 교육宗旨의 내용으로 독립민주단결로 확정하고 新교과서를 편찬할 것
13. 연합국가와의 우호관계를 保維하며 약소민족과 그 국가에 동정하는 각 정치단체와 연락을 취할 것.
14. 국제적 集體안전과 세계의 영구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15. 국방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무병역을 실시할 것.
16. 부녀의 지위를 교양하여 남자와의 균등발전을 꾀하게 하며 농민에게 우선권이 있게 할 것.
17. 국민보건시설을 보급할 것.
18. 양로제도를 확립하여 실시할 것.
19. 농촌조직을 전진히 하여 농민생활을 개선할 것.

20. 공장법과 勞工보호법을 제정하여 勞工생활의 개선을 보장할 것.
21. 전국청년을 교양단결하여 국가건설과 민족부흥의 초석이 되게 할 것.
22. 전시 재해에 빠진 동포의 구제공작에 적극 노력할 것.
23. 국외 각지에 거주하는 동포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할 것.
24. 일체의 가령과 잡세를 폐지하고 고리대금을 얹금할 것.
25. 敵產은 그 관공사유를 물론하고 일률로 몰수하여 국유로 할 것.
26. 매국적과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정치하며 그 재산을 몰수하여 국영 사업에 충용하고 토지는 국유로 할 것.
27. 봉건 파시스트 등의 일체 반민주의 경향을 숙청할 것.

당면구호(스로一간)

1. 전민족적 민주단결을 실현하자.
2. 독립운동에 희생된 선열의 유족을 구휼하자.
3. 형무소·유치장·관찰소를 개방하자.
4. 적의 창고에 저장한 미곡을 기아대중에게 분급하자.
5. 투항한 적군 내의 우리 官兵은 국방군으로 收編하자.
6. 임시정부의 정권을 민족의 의사에 의하여 조직되는 정식정부에 교환 채 하자.
7. 국내에 진입한 盟重을 진력원조 하자.
8. 각 戰區에 거류하는 동포의 안전보장에 적극 노력하자.

대한민국 27년 8월 28일 (pp. 133~138)

18. 연안조선독립연맹——“이 단체는 1942년 1월에 국제정세에 호응하여 화북조선청년동맹을 그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동방약소민국대동맹 산하에서 조선독립동맹이 결성된 단체인데, 연안정권 지원하에서 지금까지 꾸준한 항일전을 계속하여 많은 무훈을 세워 왔다. 그리고 의용군의 총사령 金武亭장군은 전형적 무인으로서 많은 청년들을 훈육해서 그가 인솔한 회하 정예부대는 왜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바이며 同 장군은 부사령인 朴孝三(참모) 朴一禹(정치)씨와 아울러 그 武名이 화북과 동북 일대에 떨치고 있다 한다. 독립동맹주석 김두봉, 부주석 韓 炳·崔昌益 기타 제씨가 近近 귀국케 된 다는데 其 일부 요인은 11월 20일경에 평양에 도착되어 김일성장군과 회합하여 의견교환 중이라고 한다.” (p. 139)

19. 이승만박사의 활동과 정계의 동향 (pp. 140~158)

기자단 初會見席上(1945년 10월 17일)의 담화 요지

33년 만에 그리운 고국에 돌아오니 감개무량하다. 그립던 산천 정든 동포형제를 나의 가슴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형편은 감상만을 말할 자리가 아니다. 우리의 앞에는 바야흐로 길이 탁 트였다. 40년 동안 막히었던 우리 앞길이 이제는 열린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이 지극히 크다. 이 일을 잘 해내고 못해내는 것이 오직 우리의 손에 달렸다. 밖의 사람들(세계각국을 말함)이 지금 우리에게서 알고자 하는 점은 4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압박과 천대를 받아오던 조선민족이 과연 저희들끼리 능히 자주독립국가를 세워 나갈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보려는 그것이다. 그런데 내가 조선에 와서 모든 사람들, 군정청 사람들과 대해 보니 그의 염원하는 바는 조선민족이 어서 빨리 한덩어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와 있는 미국사람들은 모두 하루라도 속히 자기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나는 전쟁이 끝난 후 곧 나오려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고 지금까지 애만 써 왔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미주를 떠나 하와이 팜 일본동경 등을 거쳐 급기야 어제 저녁에 이곳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하지중장, 아놀드소장과 이야기해 본 즉 의견이 합치되어 합의해 갈 수가 있음을 믿었다. 여기서 나는 우리들의 협동이라는 것을 크게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33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으므로 국내형편을 모르나 차차 알아 가면서 여러분 조선민중과 합동해 가겠다. 특히 내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평민의 자격으로 고국에 왔다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대표도 아니요 의교부책임자의 자격으로 온 것도 결코 아니다. 끝까지 한국의 평민 한 사람으로서 돌아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 미군정부와도 아무런 연락도 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오는 길을 열어준 것은 이분들이다. 나는 앞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일하겠거니와 싸움을 할 일이 있으면 싸우겠다. 그러나 여러분 4천 년의 우리 역사가 어둠에 묻혀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불미한 탓이었다. 其中에도 나와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의 잘못이 많았다.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은 젊기 때문에 其책임이 적다. 4천 년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 손으로 다시 꽂피어야 하는 것이다. 그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그리고 세계각국이 우리에게 其 기회를 주었다. 이 중대한 순간에 있어서 나만 살려고 애쓰다가 민족 전체를 못살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내 한 사람의 영광이나 지위를 떠나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하고 우리 민족이 잘 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이 번영하여야 한다는 그것 이외에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 오로지 우리의 할 일을 먼저 하며 우리 전체가 살아야 한다는 그것뿐이다(pp. 140~143).

제 1 차 방송 요지(1945년 10월 17일 오후 7시반 경성중앙방송국)

조선을 떠난 지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립던 산천과 고국 남녀동포들을 만나니 기뻐서 웃고도 싶고 슬퍼서 울고도 싶습니다. 내 예정은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 당국자들과 상의하고 金九씨와 같이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중국방면에 너무 장애가 많아서 함께 못 오고 미군용비행기로 태평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이렇게 온 것은 임시정부나 외교관계로 온 것이 아니고 다만 평민의 자격으로 私行처럼 온 것입니다. 美京 워싱턴에서 지난 4일 태평양을 떠나 올 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난 것이 급히 정거장에 나와보니 남녀친우 수십인이 전송을 해주시었읍니다. 밤 9시 상항에 도착하여 비행기를 바꾸어 타고 하와이와 팜도를 거쳐서 지난 10일에 동경에 도착하니 전후 6일간에 조선 리수로 3만 3천리를 온 것입니다. 동경에서 하지중장과 만나서 담화하고 익일에 중장이 떠나면서 피로도 회복할 겸 쉬었다 오라고 하기에 3일간 동경에서 쉬어 가지고 어제 아침에 떠나 오후에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선에 소문없이 온 것은 비밀 관계나 어떤 정당과 연락이 있어 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당과 당파가 협동하여 우리 조선의 완전무결한 자주독립을 찾는 것이 나의 희망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기회는 전무하고 또한 후무한 기회입니다. 미국인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어보자는 것이니 우리가 이때에 私惑과 私利를 버리고 합심협력하여 회복을 주장하면 잘 될 수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 말을 일반동포에게 일일히 잘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미국 정부나 백성은 우리의 독립을 절대로 주장하고 있읍니다. 일본에서 조선까지 오면서 보니 맥아더대장, 하지중장, 아놀드소장은 모두 우리들의 동정자들이었읍니다. 그분들이 말하기를 한인이 차차 배워가며 자치자주할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친구들이 일을 도와 줄지라도 일을

아니하든지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면 남의 도움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후 또 말할 기회가 있겠기로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마는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할 것은 남녀 여러분은 일심합력으로 이 기회를 잊지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pp. 144~145).

제 1 회 독립촉성중앙협의회결성준비회 때의 담화요지

(1945년 10월 23일 오후 2시)

지금 이 차리는 역사를 만드는 모임이다. 내가 만리이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다만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과 가슴을 헤치고 손을 맞잡고 서로 앞일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의론을 하겠다는 그것이었다. 그 순서를 결정하자는 것이 이 모임이다. 나의 이 모임에 바라는 바는 진실로 크다. 여러분도 끌 것이다. 이 방 안의 공기는 조용하나 세계각국이 이 한 집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안에서는 조선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일본이 물려간 뒤 한인들이 자유로 일어나서 60정당이니 50정당이니 하고 난립하여 야단 범석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정작 내가 와 보니 여러분들도 차차 손을 맞잡고 나가려는 공기가 떠돌고 있음을 알고 내가 기뻐한다. 우리가 당장 할 일은 나라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희망하고 듣고 싶은 것은 무슨 정부 조직이나 대항할 기관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임시정부를 가진 사람이다. 그 임시정부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은 피를 흘려 싸워 온 사람들이요 각국의 승인을 받은 터이다. 그 분들도 하루 바삐 고국에 돌아와 여러분과 손을 잡고 함께 우리들의 굳센 나라를 세우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김구선생은 명예나 권리 를 원하지 않은 분이다. 자신 생명까지도 모르는 분이다. 전인민이 좋은 정부를 조직하면 거기에 따라가실 분이다. 임시정부가 지금까지 곧 못 들어오는 이유는 중국공산당의 간섭이 있었던 듯싶다. 그러나 불원간 곧 들어 올 것을 믿는다. 그리하여 전국민이 바라는 인도자를 내세워 민심을 통솔하게 되면 세계각국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만 여기에서는 각 당, 각 단체의 주의주장을 내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친다는 데 그 무엇이든지 뚜렷한 의결을 솔직하게 말하여 주기 바란다. 나는 40여 년간 깃은 고초를 겪으며 싸웠지만 앞으로도 싸워가겠다. 무엇이든지 희생하겠다. 여러분도 그만

한 생각이 없다면 여기에 참석할 자격도 없고 소용도 없다. 지금까지는 소리가 너무 많은 탓으로 세계에서 조선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조선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다. 오늘은 그 소리를 하나로 하여 세계에 표명하자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 자리에서는 모든 상호간의 감정이나 관계를 청산해 버리고 지금의 조선 사람 형편만을 짚어 생각하여야 한다. 이 판에 잘못하면 40년이고 50년이고 또 남의 노예 노릇이나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를 만들자. 한 냉어리로 우국심을 갖고 뭉쳐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세계에 보여야 한다. 其 기관을 만들자. 이 모임은 실로 조선독립을 위하여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억지로 뭉치라고 강요하지도 아니하고 또 뭉쳐 만들려고도 아니한다. 당신들이 뭉쳐서 조선사람에게 살 길을 가르키라. 그럼으로 우리 서로 의논하자. 우리가 잘 살길을 말해보라. 살 길이 이 자리에 있다. 짚어 생각하라. 나의 묻고자 하는 것과 듣고자 하는 것은 어느 단체의 편협된 의견이 아니다. 3천만 민족의 원하는 바 그것을 대표하는 부르짖음이다. 타국사람이 조선의 뜻을 알려고 하면 곧 가서 들어볼 만한 책임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힘은 이것을 만드는 데 바쳐야 한다. 그리하여 이 빙을 나설 때는 만세를 부르도록 약속하자(pp. 146~148).

제 2 회 독립축성중앙협의회결성장 담화 요지

(1945년 11월 2일 오후 2시 천도교대강당)

이승만박사가 발언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들이 할 일은 주권이 우리 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하 독립의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인은 아직 단결성이 없으니 아직 독립은 못할 것이라고 해외에서 말하는 자도 있으나 3천만이 하나로 뭉치어 외국에 열렬히 요구하면 원하고 요구하는대로 될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관은 3천만 민중을 대표하여 독립을 축성하는 것이 중요한 會이다. 이 會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 시급한 문제는 38도선 철폐문제와 신탁관리반대이며 이것을 해결하려면 왈가왈부로 각 당이 싸우지 말고 합심하여 완전독립을 기하여야 한다. 이 관점에서 4대 연합국에 이 결의서를 보내자는 일련을 토한 다음 이박사는 영문으로 지은 결의서를 낭독한 다음 이어서 열렬한 토의 전이 전개되었다. 먼저 元世勳씨(한국민주당)가 其 결의서에 무조건 동의

한다 하여 박수로 찬의를 표하자 李珖씨(인민공화국 간부)는 38도 문제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다 하고 朴憲永씨(공산당수)는 결의서 중 우리 조선을 양단한 것은 우리들이 자취한 것이 아니요 열국이 강행한 것을茲에 천명 아니 할 수 없다는 문구와 열국에 대한 중요한 인식 사항 제3항 중 在重慶의 우리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승인하에 환도운운하는 것은 부당하고, 친일파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민족통일을 완성시키자, 이 요구가 채택 안되면 공산당은 협의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비판적 열변이 장내를 흔들었고 학도대표가 이박사를 주석으로 하는 인민공화국 절대지지의 결의문을 열렬히 낭독하다가 시간관계로 중지 당하고 그대로 이박사 앞에 제출하였다. 장내가 잠시 혼란하자 여운형(인민당수)씨가 기립하여 이박사의 결의문은 필요하며 38도문제 及 신탁통치 문제의 해결요구의 의의는 좋으나 문구의 부당과 일부의 불충분한 점은 수정하자는 발언에 혼란이 일소되며 결의문 중 일부 수정위원회선거로 들어가 여운형·안재홍·박현영·이갑성 4씨가 피선되었다. 그 다음 박현영씨가 시종 이박사를 싸고 도는 불순 분자들이 협의회의 사명을 잃고 공산당에 대한 배척행동을 한다는 점을 솔직히 지적, 李선생의 민족지도자로서의 사명과 협의회결성에의 노력을 존경하는 동시에 독재적인 것을 배격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원칙을 세우자는 발언이 있었다. 그리고 이박사는 다수의 의사에 대하여 소수의 반대가 있더라도 공화주의원칙에 비추어 복종하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립해 주시요 하는 정중한 요구가 있자 각 정당대표가 기립하였다. 집행위원회총본부 구성에 관한 건에 들어가 안재홍씨 발언으로 전형위원 7명을 선정하게 되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되는 만큼 이박사께 일임하자는 데 일동이 찬성하였다. 이박사는 폐회에 임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에 대한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나 나는 친미파가 아니요 미국에 있어서도 조선민족해방을 위하여 미국과 싸워 온 것이다. 독립축성에 관하여 인적 요소와 금전과 조직이 필요하며 現狀에 비추어 운동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강제적 요구는 아니나 재력 여유 있는 이는 이 성스러운 건국사업에 찬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위선 의식주의 급선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3천만 동포가 하나도 무위도식하지 말고 직장으로 나가자. 그리고 腻劣한 야욕을 버리고 합동협력해서 하루 빨리 건국사업을 완성시켜 나가자(pp. 148~151).

이박사의 중대방송요지(1948년 11월 7일 오전 8시 반)

(서울중앙방송국 : 임정 김구 주석의 귀국에 앞서서)

내가 이곳에 온지 어느듯 3주일이나 경과되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심방과 농후한 접대를 받은 것은 깊이 감사한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일일히 면접치 못한 때도 있어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나는 귀국 당초부터 책임없는 일 개인의 시민으로 심방답화도 하며 또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였으나 자연 분망한 까닭에 원을 이루지 못하여 미안히 생각하는 바이다. 현재 조선은 절대의 기회를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위태한 시기에 놓여 있다. 조선사람이 이때야말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死一歸로 나가려고 결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강토도 찾을 수 있으며 자손만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세울 수도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에 빠질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각오하며 재인식하여 일시라도 허송하지 말 것이다. 내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 하지중장이 나를 보고 말하기를 기미년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서 명한 33인 중의 생존한 이가 몇 분이냐고 물으며 그 사람들을 먼저 만나 보라하기에 만나 보려하였으나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죄송하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분들과 만나 보려 한다. 여러분도 나를 만나 보시려 하시는 분은 되도록 심방을 중지하시고 그 대신 서면을 보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왜적은 망했다. 방정을 떨다가 결단나고 말았다. 내가 미주에서 비행기로 일본厚木비행장에 도착하여 동경과 요코하마를 가보니 쑥발이 되었고 미군의 폭탄으로 인하여 요코하마의 90%, 동경은 75%가 파괴되고 요코하마에는 3주일 동안이나 전물이 타고 공장은 2주일이나 탔었다는데 악독하던 왜적에게 대한 당연한 천벌이라고 하겠다. 수십 년 동안 학살을 당한 우리 동포 혼령에 대하여 위령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다만 우리 손으로 원수를 못 갚은 것이 원한이나, 예수크리스트씨는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었는데, 과연 그대로 된 것이다. 일인들이 우리 조선을 마음대로 만들어 내어 일본은 내놓을지언정 조선은 내놓을 수 없다는 그 조선이 지금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일인은 복통을 할 것이다. 조선에는 일부 일본인이 시민이 되어 살겠으니 허락하여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너무도 악독하였던 까닭에 있기 어렵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하여 무슨 정책이 있겠기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독립하는 데 대해서는 그다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국토를 찾지 못하는 것은 무슨 연고인가. 그것은 첫째로 일본이 속박하여 아무 것도 못한 것이다. 일본의 대외선전이 조선사람은 독자적인 일을 못하고 분쟁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스리는 것이 조선의 행복이라는 악선전을 세계에 늘어놓은 것이 其원인이다. 둘째로 우리 임시정부에 대하여 일부 한인들의 반대와 간악한 악선전으로 인하여 연합국에게 정당한 인식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항복하여 우리 임시정부가 들어와 모든 문제를 차례차례 해결하며 이렇게 해야 군정도 순조로이 될 줄 알았더니 임시정부는 들어오지 못하고 소련과 미국이 半分式 점령하여 민심이 혼돈 상태에 빠지고 여러 정당이나 서고 각국 신문통신엔 경당이 10~20이라는 애매한 보도가 세계에 전파되었다. 그리고 조선은 자치능력이 없다고 잘못 선전하였으므로 국제신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국제신탁이라는 것은 자치자격이 없으니 누가 대신 다스리자는 것이다. 즉 여러 나라가 합동하여 신탁제를 만들어 그 이름으로 다스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무식하고 무능한 짓을 하면 필경에는 실현되고 마는 것이다. 실현한 후에 암만 반대하여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제신탁이 되면 우리의 상권은 여럿이 된다. 따라서 이것을 벗어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한시 바삐 합동하여 참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갖고 자치능력이 있음을 세계에 보이는 것이 제일 급하다. 군정청은 우리 독립의 친구다. 내가 미국에서 동경에 도착하여 맥아더대장을 만나니 그는 高聲으로 말하기를 한인들이 자치능력이 없다 하니 이것은 악선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한인들이 만사를 잘해 가리라고 믿는다. 그런데 지금 합동문제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 이것을 분열하는 문자가 있어 아직까지도 이런 문자들이 민족분열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단체의 인도자들이 국토를 찾을 때까지 주의주장을 정지하고 합동하여 있어 감복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국내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하고 주석으로 나를 추대하였다 하니 나를 이만치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는 것은 감사하나 其 사실을 검토하고 공식으로나 비공식으로나 무관함을 알리고자 하였으

나 각 인도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점도 있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생각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한국임시정부에 복종하여 김구씨를 응호하여 온 터이니 다른 방법으로 정식 타협이 있기 전에는 다른 정부나 정당에는 이름을 들 수 없다. 국권회복하는 데 각 정당은 대동단결 할 것이며 대동단결하는 데 대하여 다른 이론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하나이다. 군정부에서는 조선 인민공화당은 허가하나 국의 명칭은 허락치 않는다. 지금 조선의 정부는 군정청정부가 하나 있을 뿐이다. 조선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정부도 아니요 대표기관도 아니다. 임시정부가 각국의 승인을 받은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의 과도기 일을 하자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도 이와 같이 알고 모든 단체가 합하여 합동기관을 세우고 경성중앙협의회로 대표자를 파송하여 중앙에서 하는 것에 따라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아니하여도 양호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김구씨 이하 30명은 不日內로 경성에 도착한다. 이 정부가 연합국의 정식 승인없이 들어옴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전국이 대동단결하여 이 정부를 맞이하면 각국 승인도 빨리 올 것이다. 장개석씨는 나의 친구요 김구씨의 친구이다. 이 정부가 들어옴에 당하여 전국이 대환영할 줄 믿는다(pp. 151~155).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의문(수정된 결의서) : 4대 연합국

특히 亞美利加 민중과 소련민중에게 보내는 결의서

우리는 이에 3천만 조선대중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4대 연합국과 소련 및 아미리가 민중에게 보낸다. 연합 4국의 민주주의 응호를 위한 영웅적인 전투가 나치스독일과 군국주의일본을 철저히 타도하고 우리 조선에도 민족적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한 인도적인 우의에 대하여 우리는 조선 민족 3천만의 이름으로 심심한 감사와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 물론 우리의 다년 적이었던 일본이 항복한 후 조선에는 여러 정당이 발생하였고 또한 우리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보통 있는 일이고 또한 아미리가 민중이 그 모든 제도를 발달시킴에 있어서 밟아 온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모두 합동하였다. 조선의 全 민중을 대표하여 경성에 존재하는 각 정당은 우리의 공동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로 완전히 통합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한 목적을 위하여 한 덩어리가 되었다. 우리의 목적은 즉 우리의

완전한 독립이다. 우리는 주권국으로서의 영토적·정치적 및 행정적 모든 특권을 회복하는 권리다. 조선을 남북이 양점령구역으로 분할하는 가장 중대한 과오는 우리의 自取한 바가 아니요 우리에게 강제된 바이다. 우리나라를 양단이 되었다. 북위 38도 이북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그 이남은 아미리가군이 점령하였다.

貴列國은 조선사람이 분별이 되었음으로 자유 국민의 자격이 없다 하나 우리 조선을 마치 양단된 몸과 같이 양단한 것은 우리가 自取한 바가 아니요 貴列國이 강행한 것을 이에 선명치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양단된 몸으로써 어찌 생존하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카이로선언에 발표된 모든 조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민족적 생활을 통일체로서 조직하는 기회가 허여되기를 이에 단호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맥아더대장이나 하지중장이나 군정장관 아놀드소장이나 이 양단정책에 대하여 하등 關知한 바가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양단정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태에 관하여 그들이 오해와 부당한 비판을 받게 된 것을 유감으로 하는 바이라. 사실 그들은 우리의 주장과 요구에 대하여 공평과 호의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에 관한 책임자를 알고자 하며 조선의 장래 운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이 사실에 관하여 귀 열국의 명백한 성명을 요구하여 마지않는다. 우리는 은인자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양단정책의 참담한 결과는 날로 확대하고 심각하여지는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불행한 사태로부터 속히 해결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중에 또한 조선통치에 대한 공동신탁제가 제안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경악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경의와 信實한 우호의 정신으로써 이 제안이 미국의 對조선정책에 있어서 또한 중대한 과오가 될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 수십년동안 미국의 극동정책은 주로 일본인과 몇 친일파를 통하여 얻은 정보에 기인하였고 그 결과는 전주만의 慘害를 초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이후에 있어서도 미국 국무성의 당국자는 우리의 경고를 반복거절하여 마침내 현재의 혼돈상태를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당국자의 대부분과 이제 정치가들과 그 자리를 교대하게 되었다. 대통령 트루만씨와 국무장관 반스씨를 지도자로 하는 미국은 금후 조미 양국간에 일총 양호한 양해의 길을 타개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는

귀 열국의 가장 중요한 인식사항으로서 좌기 사항을 이에 제시한다.

1. 우리는 자주 할진대 1년 이내에 국내를 안顿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의 물질적 기술적 후원으로써 비교적 단시일 내에 평화로운 보통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아직도 일본인의 선전술에 마취된 자들이다.

2. 우리는 연합국과 우호관계로 협력할 것이며 극동평화유지에 응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3. 우리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국민선거를 단행할 것이요, 1919년에 선포된 독립선언서에 의하여 천명된 민주주의의 정치원칙을 어디까지나 존중할 것이다. 조선인은 연합국과 싸운 일이 없고 따라서 연합국은 조선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의로 귀열국에 지적한다. 조선은 과거 40년간 우리의 공동 적인 일본과 싸워 온 것이 사실이다. 일총 더 큰 규모로서 금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우리가 무기대여법의 정부와 민주주의국의 병창으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지 못한 데 기인한 것뿐이다. 우리는 정복된 적국의 경우에 는 분격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한 일대 불의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타개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허여하기를 요구한다.

귀 열국이 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써 우리를 판단할 것이요. 우리에게 대한 他의 말로써 판단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연코 공동선탁제를 거부하며 기타 여하한 종류를 물론하고 완전독립 이외의 모든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전 생명을 바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귀 열국의 회답을 경의로선 고대하고 있다.

1945년 11월 4일

조선독립축성중앙협의회 (pp. 155~158)

송진우씨 (pp. 180~182) —— “[……] 그런데 同氏에 대하여는 세간에서 여러가지 비난과 악평을 하는 자가 있다. 그 이유를 들면 ① 유산자 김성수씨와 이신동체란 것, ② 김성수씨의 배후에는 대재벌 김연수씨가 있다 는 것, ③ 그러므로 송씨는 주위에 있는 인물들과 관계하는 단체의 구성 내용을 보아서 불순하다는 등. 그러나 종래에 일본인은 송씨는 배일파의

巨頭視하고 동아일보를 배일파의 소굴시한 점으로 보아서나 同氏를 신뢰하고 주위에 집결된 독립운동의 투사 제씨를 보아서나 同氏의 경력, 사상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同氏에 대한 악평은 천만부당한 誤評이라 하겠으며 일부 반대파의 고의의 악선전 또는 무지한 일부인사의 무의식적 비난에 불과하므로 문제시 할 필요는 없다.”(p. 181)

장덕수(pp. 194~195)——“[……]최근 말썽 듣는 것은 그 교수의 직을 아껴서 그러함인지 보호 관찰에 걸린 것을 면하고자 하여 그러한 것인지 부득이에서 출한 것이라 하겠으나 좌우간 왜적에게 이용되어 非본의적인 전쟁협력적 방송강연 기타 논문발표 등을 함에 대하여 상당한 비난이 있는데 이 과오와 실태는 有爲多才한 氏本人을 위하여 애석할 뿐만 아니라 인재부족한 조선사회의 일대유감되는 일이다.”

김일성 씨(당 33세 祖 평안도인)——

“씨는 로령출생으로 籍은 소련에 있다 하며 소련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육군소좌로 있다 하며 今次의 독소전에는 영웅적 공을 세워서 스타 팀 훈장을 받았다 하며 今番 평양에 來到하여 조만식씨와 함께 조선민주당을 조직하고 소련친주군의 고문격으로 정치적 공작에 대활동을 하고 있다. 비교 : 同氏에 대한 조사는 연락불능으로 불충분함을 면치 못하였다. 그런데 연전에 간도지방에서 대군을 지휘하여 신출귀몰적으로 日匪를 침해곤란케 하여 시시로 대대적 보도가 되는 김일성씨는 그 부친 金光瑞(제 2대 김일성)이라 하며 [현재의 金은] 3대로 그 명의를 상속 중이라 한다.”(p. 203)

이상으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노출시켜 보았다. 이 책은 해방 초기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충분히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